

데이터 야구·아낌없는 지원 창단 9년 만에 우승 위업

NC, 두산 꺾고 한국시리즈 우승...집행검 세리머니 화제 선수 영입에 톡 큰 지원...원정 때 1인 1실 배려 선수 경기력 ↑ 전문 데이터팀 체계적 운영...KIA, 타산지식 삼아야

주장 양의지가 '집행검'을 뽐내려는 순간 NC 다이노스의 꿈이 현실이 됐다.

NC는 지난 2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2020 KBO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4-2 승리를 거두며,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날 NC는 역대 신생팀 최단기간 우승 기록을 작성했다. 지난 2011년 창단해 2013년에 1군 무대에 진입한 만큼 9년 만에 이룬 우승이다.

극적이었던 우승의 마지막 순간도 화제였다.

팀의 안방마님이자 주장 양의지는 우승을 확정하는 마지막 삼진 공을 잡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투수 원종현과 열싸안고 기쁨을 나누는 양의지는 한 동안 그라운드에 누워 감격의 순간을 만끽했다.

한결같은 표정으로 시즌을 달렸던 양의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화제의 눈물 뒤 다시 한번 양의지에게 시선이 쏠렸다.

시상식에 앞서 특별한 '검'이 그라운드에 등장했다. 모기업인 엔씨소프트의 대표 게임인 리니지의 귀한 아이템인 '집행검' 실제 모형이었다. 주장 양의지가 이 검을 뽐내며 들어올리자 NC 선수들은 승리의 합성을 질렀고, 이 장면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

NC는 삼총사의 유명한 문구인 'All for One, One for All'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을 이번 한국시리즈 콘셉트에 활용했다.

NC 선수단이 검을 활용한 우승 세리머니 아이디어를 냈고, 김택진 구단주가 직접 검을 공개했다. 이들은 함께 이룬 결실을 축하하는 'One for All' 세리머니로 눈길을 끌었다.

정규시즌 우승을 지켜보기 위해 광주-대전-창원 투어를 했던 김 구단주는 한국시리즈 현장에서 서로 함께 하며 NC의 질주를 돋보여 주었다.

2011년 NC가 대기업 장벽을 뚫고 KBO리그에 처음 뛰어든 것을 감안해도 우려와 무시의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NC는 화제의 세리머니에서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KBO에 이슈를 만들곤 했다.

창단 후 선수들에게 개인 명함과 엔씨소프트 사원증을 만들어주며 '하나'라는 소속감을 심어

줬고, 2014년에는 KBO구단 중 처음으로 원정경기 때 1인 1실을 제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였다. 이번 한국시리즈 때도 NC는 선수들에게 최고급 호텔을 배정했다.

구단 최고의 자산인 '선수'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구단주가 직접 나서 양의지라는 특급 전력을 채웠고, 올 시즌 중반에는 KIA와의 깜짝 트레이드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력 외 선수였던 김태진을 통해 박정수라는 미래 자원까지 얻어 트레이드의 승자가 됐다.

지난 시즌 영입한 이명기도 우승을 확정하는 결승타를 만들어내며 2년 연속 트레이드 효과를 누렸다.

또 선수들의 부상 원인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 올 시즌 홈구장 그라운드 컨디션을 조절하는 등 선수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 데도 공심했다.

데이터 야구도 최단기간 우승의 바탕이 됐다. 형식적으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데이터팀을 운영하는 구단도 있지만 NC는 전문적인팀을 운영하고 있다. 6명의 분석 직원과 데이터를 읽고 가공하는 직원만 6명, 금녀의 벽을 깨고 여성 직원도 합류했다.

선수들은 지금껏 태블릿 PC로 팀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만졌지만 보고 팀의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를 적극 수용하면서 승률을 높이고 있다.

이동욱 감독은 일찍부터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온 지도자이다. 구단의 뜻과 현장의 의지가 잘 맞물리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구단의 각 부서마다 보고 체계를 간소화해서 특성에 맞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소화하도록 했고, 본사 차원에서 R&D 팀을 운영해 지역에 떨어져 있는 야구단이 정체되지 않게 한 것도 의미였다.

신생팀으로 시행착오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지만 변화와 시도를 통해 NC가 꿈을 이뤘다.

'뜬금 우승' 뒤 후퇴와 정체를 반복한 KIA 타이거즈 입장에서 고민해봐야 할 장면들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집행검 뽐내는 전사는 양의지 2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KS) 6차전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우승을 차지한 NC 다이노스 양의지 등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모기업 NC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집행검을 들어 올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활용법’ 무리뉴 선택은?

내일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4차전...부상 우려 선발 고민

‘토트넘 제일감’ 손흥민(28)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토트넘 홋스퍼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5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루도고레츠(불가리아)와 2020-2021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J조 4차전을 치른다.

시즌 초반 썰매 날던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정규리그에서 넣은 번리전 결승골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득점하지 못했다.

번리전 뒤 유로파리그와 EPL에서 선발과 교체 올가미 4경기에 출전해 득점 없이 1도움을 추가했다.

이러던 A매치 기간 대표팀에서 멕시코, 카타르를 상대로 총 2도움을 올리며 숨을 고른 손흥민은 지난 22일 토트넘에 큰 고비였던 맨체스터시티와의 정규리그 홈경기(2-0 승)에서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다.

약 한 달 만에 넣은 골이자, 리그 득점 단독 선두(9골)로 올라서게 하는 골이었다. 토트넘을 EPL 단독 선두로 올려놓는 귀중한 득점이기도 했다.

다음 상대 루도고레츠는 토트넘에 몇 수 아래로 여겨져 손흥민이 ‘골 감각’을 이어가기에 제격인 팀이다.

토트넘은 앤트워프(벨기에), 린츠(오스트리아)와 승점은 6점으로 같지만, 동등 팀 간 골 득실에서 앞서 J조 선두에 있다.

토너먼트 진출을 최대한 일찍 확정 지으려

며 조 최약체 루도고레츠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올 시즌 벌써 11골(정규리그 9골·유로파리그 2골), 5도움(정규리그 2도움·유로파리그 3도움) 이상 유로파리그 예선 기록 포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루도고레츠를 잡을 최고의 무기다.

하지만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 카드’를 아낄 가능성도 작지 않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뻥뻥한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대표팀 2경기에서도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다.

게다가 토트넘은 루도고레츠전 사흘 뒤인 30일 정규리그에서 첼시와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한다. 여기서 이기면 토트넘은 EPL 단독 선두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리버풀이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 속에 고생하고 있다는 점도 모리뉴 감독에게 변명교사가 될 바이다.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 없이도 루도고레츠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첼시전에 대비, 과감하게 그를 벤치에서 쉬게 할 전망이다.

루도고레츠와 첼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모리뉴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토트넘과 루도고레츠의 경기 예상 선발 명단을 내놓으면서 손흥민과 간판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의 이름을 뗐다. /연합뉴스

김민식 “우승 포수 향해 체력부터 다시 시작”

지난해 부진 발판 올 시즌 최선

좋은 타격 위해 준비하는 과정

내년 부상 없이 시즌 완주 목표

KIA 타이거즈의 포수 김민식이 “다시 그 순간이 오면 (공을) 잘 들고 있겠습니다”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사연 많았던 2020시즌이 막을 내렸다.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NC 포수 양의지는 두산 최주환의 삼진공을 잡으면서 마지막 순간을 장식했다.

시즌이 ‘진짜’ 끝나는 날 KIA 포수 김민식은 2017년을 떠올렸다.

SK와의 트레이드로 KIA에 왔던 김민식은 함께 이적했던 이명기와 정규시즌 우승 멤버로 활약을 하면서 최고의 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한국시리즈에서도 안방을 지켰고, 타이거즈의 11번째 우승이 확정된 순간에도 주목을 받았다.

김민식은 7-6으로 앞선 9월말 2사 만루에서 두산 김재호의 파울 플라이를 직접 처리하면서 ‘V11’에 마침표를 찍었다.

KIA도 김민식도 상상하지 못했던 2017시즌의 마지막이라 우승공을 챙길 여유도 없었다. 김민식은 그대로 공이 든 미트를 바닥에 던진 뒤 마운드로 달려가 투수 양현종의 품에 안겼다.

구단 직원들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승공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불펜 포수 이동건이 챙겨주면서 ‘우승공 해프닝’으로 끝났었다.

김민식은 “(양)의지 형은 끝까지 공을 쥐고 있더라. 나는 저걸 패दा치 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웃음)”며 “공을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못했다. 당시 잡았다. 끝났다. 이겼다. 우승이다” 이 생각만 했다. 다시 그 순

간이 오면 잘 들고 있겠다”고 또 다른 우승 순간을 기억했다.

돌아보면 가장 빛났던 2017년이지만 지난 부진을 더 크게 느끼게 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김민식은 ‘우승포수’로 2017년을 마감했지만 2018년에는 53경기 출장에 그쳤다. 타율은 0.167. 올 시즌에도 시작은 좋지 못했다. 2군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김민식은 7월 12일에서야 1군에 합류했다.

시즌 첫 경기에서 멀티히트와 함께 5타점을 쓸어 담은 김민식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69경기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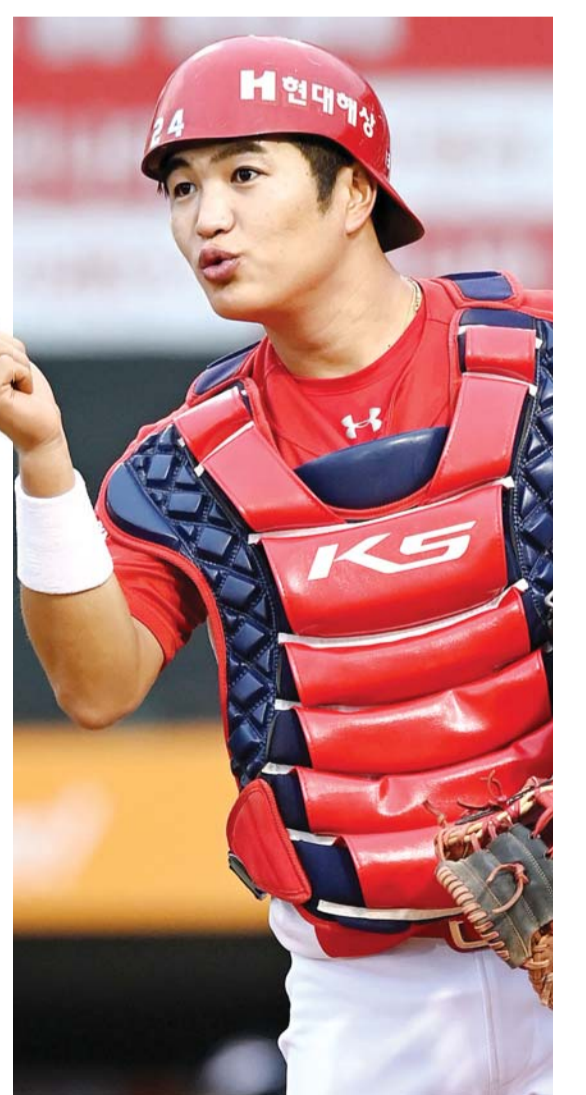
김민식은 “기억에 남는 시즌이었던 것 같다. 1군에 합류 못 하고 있다가 올라와서 시합도 나가고 많은 것을 배웠다”며 “지난해에는 2군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포기도 했다. 성적이 확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올해 나름대로 준비한 것도 있고 끝까지 1군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시합에 계속 나갈 때는 성적이 쫓겼다. 올해는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했다. 한 게임, 한 타석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시합 나가는 자체가 즐거웠다.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진이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그 사이 팀에서의 위치도 많이 달라졌다.

김민식은 “2017년에 처음 주전을 했는데 멋도 모르고 나왔다. 좋은 선수들이 해주니까 따라가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위에 나이 많은 형들이 없어서 제가 끌어다야 하는 나이가 됐다. 책임감도 생긴다”고 말했다.

김민식은 차분하게 ‘체력’에 맞춰 겨울을 보내고 2021시즌 새로운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식은 “올 시즌 타석에서 많이 편해졌지만 좋은 타율은 아니었다. 지금도 바꿔 가는 과정이고 잘 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며 “내년 시즌 올해보다 경기 수 많이 나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다치고 완주하는 게



목표다. 웨이트, 유연성 등 1년을 버티고 안 다칠 수 있게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